헬리오폴리스의 신화

불가시세계의 영역을 통하여 발출된 씨앗, 잊혀져가는 영혼을 받아들임으로서 현재의 이집트에 해당하는 원생대의 한 바다에 피를 뿌리고 이 결과 이집트의 신들이 태어난다.

불가시의 영향으로 감정이 싹튼 결과 태초의 흙과 둔덕의 신인 벤벤이 먼저 태어났다. 이벤벤은 에트로의 정기를 먹고 거대한 물을 입에서 뿜어내 최초의 바다의 신 눈과 연꽃의 신 네페르템 학문의 신인 화룡 프타(언어의 기원)이 태어났다 그중에서도 눈이 으뜸이었고 주로 어두운 바다와 무를 상징하는 거대한 존재로서 검푸른용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눈은 자신의 심상의 어둠을 이용하여 세계를 만들고 어둠의 세계에서 존재가 완성되어 태초의 신 아툼과 달의 신 콘수가 태어났다.

이 아툼은 거대한 세상이 넓은 것에 대해 탐탁치 않았는지 저물어가는 태양으로서 직접 자신을 둘로 나눠 떠오르는 태양인 라와 떠있는 태양인 아몬이 되었다

이 라는 스스로 대지의 신 게브와 습기의 여신 테프누트를 토해내어 창조

아몬은 하늘의 여신 누트와 더운 공기의 신 슈를 생성했다

누트와 게브가 언제부터인가 서로 사랑하고 슈와 테프누트역시 서로 사랑하여 땅과 하늘 물과 불이 부딪히는 것 을 본순간 아툼은 뭔가 비전에서 이 4신의 자손들이 이집트를 지배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다. 이를 원치 않은 태양신들은 4자식들을 떨어트려놓았다. 1년 내내 자신들이 보고 있는 동안은 절대 자식을 낳지를 못한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말이다.

이를 참다 못한 지혜의 신 토트는 달의 신 콘수와 내기로 장기인 세나트를 두고 승리하여 지구내 1년의 법칙기준인 365일을 늘림은 물론 이세나트를 바탕으로 5일간 태양의 눈을 가려 누트와 게브, 슈와 테프누트가 5일동안 태양신의 감시를 피할수 있게 한것이다.

결국 슈와 테프누트는 오시리스와 네프티스를

게브와 누트는 세트와 이시스를 낳았다

한편 아툼은 분했지만 어쩔수 없었기에

이 9체[[1]](#footnote-1)의 신 그룹을 엔네아드라고 하리

이후 아몬은 명력의 여신이자 왕의 검이라는 별명을 가진 이위사세트를 만들어서 법의 여신 마트를

라는 풍요의 여신 네베트베트를 만들어 사랑의 여신 하토르와 전쟁의 여신 세크메트 생력의 여신 바스테트를 낳았다

참고로 이시스와 세트 세크메트는 같은 클랜으로 엑시즈 서몬방식이다

1. 아툼, 라, 아몬은 애초에 하나로 취급한다 [↑](#footnote-ref-1)